



濁流清論

제23호 2012년 12월 18일(화)

발행인 : 강명구 / 편집 : 편집위원회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전자 메일 (lisani@ajou.ac.kr)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간 기간 동안은 휴간합니다.

탁류청론 24호는 3월 초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 목 차 >

당겨 써본 이임사: 진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총장평가 그 후: 일어나 떠나라	5
<총장 업무평가>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7
총장임기 후반에 기대하는 것	8
아주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9
정년을 앞두고 드리는 말씀	11
교수들의 건강 칼럼: 홍통과 위험인자의 관리	12
소통과 답론: 중국공산당의 권력고 제와 중국의 미래	14
소식	16

당겨 써본 이임사

진정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회 의장 강명구

“교수회 의장직 일 년을 반추해 달라.”는 <탁류청론>편집자의 제안을 미리 쓰는 이임사 정도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으리라. 내년 3월이면 새 책임자가 교수회를 이끌 것이고 아울러 취임 초 공개적으로 제시한 재임기간 중 목표는 거의 마무리 되었거나 마무리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떠나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 만은 않다. 뿌려 놓았다고 생각하는 씨앗들이 본부나 교수사회라는 밭에서 얼마나 싹이 트고 있는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일을 마주하여 헤쳐 나가던 중 덜 정리된 생각의 덩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이어지는 글은 이런 생각의 덩이들을 가지런히 하여 조각보 맞추듯 잇대어 갈무리해 본 것이다.

연구실로 배달된 신간 서적을 펼칠 때 나는 앞머리 숭숭한 내일 모레 육순(六旬) ‘꼰대’에서 신(新) 삼월 대학 초년생으로 변신(變身)한다. 아직은 쌀쌀한 삼월, 찬바람 속에서 느끼던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 이런 청춘을 순간이나마 재생할 수 있게 해 주는 내 직업을 참미함이 마땅하다. 노벨상 후보군에 든다는 꽤나 잘 나가는 두 학자가 올해 출간한 책 제목이 거창하면서도 매력적이다.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페이지에 계속

(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 권력, 번영 그리고 빈곤의 기원).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게 되고 또 다른 어떤 나라는 못 살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은 21세기 판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 정도 되시겠다. 땅속에 묻힌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평이 자못 궁금할 정도로 나오서는 매우 흥미 있게 일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영제국의 초석이 된 18세기 산업혁명이 왜 당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나 스페인 혹은 네덜란드가 아닌 영국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백미(白眉)였다. 거창한 질문에 비하면 그들의 답은 간결하고 명쾌하다. 문화, 역사, 인종, 종교, 지리, 기후 등 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institution) 때문이란다. 거두절미 하자면, 더불어 잘살려는 포용적 제도를 택한 나라들은 동기유발을 일으켜 잘 살게 되고, 소수만 잘 살려는 배타적 제도를 택한 나라들은 몰락했다는 주장이다.

서평란도 아닌데 책이야기를 준(準) 이임사 앞머리에 끌어들이는 나름 연유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책의 저자들이 던진 질문을 비록 분석의 수준은 낮추었지만(즉, 국가가 아닌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나도 교수회의장직을 맡으면서 스스로에게 항상 던져왔기 때문이다. “아주대학은 왜 뒤쳐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아주대학이 보다 나은 학문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교수회의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답변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책이 주장하는 바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아주대는 여러 요건이 그런대로 갖추어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팬찮은 학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인해내는 포용적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발전의 원동력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것이 침체의 원인이다. 포용적 제도화의 최대 장애물은 재단 (혹은 더 나아가 재단에

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의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 운영방식이며 점 점 더 큰 원을 그리며 악순환(惡循環)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다. 교수회의의 역할은 이러한 원심력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선순환(善循環) 방향으로 전환시킬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이 조성될 수만 있다면 **약간의** 긍정적인 제도 변화만으로도 선순환의 증폭현상을 통해 우리는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아마도 그 모멘텀의 시발점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총장선출제도의 개선일 것이다.” 농축된 주장이니 지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기로 하자.

굳이 지표를 들이대며 분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강의실에서, 휴게실에서, 그리고 회의실과 사무실에서 어렵잖게 여기저기 흩어진 해답의 흔적들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들 장소에서 느낀 우선적 분위기는 그래도 이 정도면 팬찮은 대학이라는 안도감이다. 그러나 이런 안도감 이면에는 어딘지 모르는 은근한 무력감, 현상을 정당화하고 이에 기대려는 안주감(安住感),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매너리즘의 혼합체가 깊게 뿌리를 틀어가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되는 문제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간과할 수 있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그렁고 그렁 소소한 일들로부터 연유한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펀드투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학 평의회와 교수회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예사롭게 넘어갈 문제였다. 결과 보고회 후 관련 담당자가 되 버이듯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몰랐는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유동자금과 기금의 혼용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회계장부만 나중에 그럴듯하게 맞추면 되는 일이었고, 다른 대학도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터진 일 수습하다 보니 하는

수없이 다시 회계장부 왜곡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이다. 미분적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적분적으로 보니 제앙급 수준이 된 것이다.

박종구 전 직무대행 문제도 결코 다르지 않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 바에야 임용절차상 요구되는 형식요건은 대충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니 회의록 대충 작성하고 연구 업적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치고… 교무처 접수부터 시작하여, 무슨 무슨 위원회에, 중앙인사위원회, 법인이사회까지 도대체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쳤는데도 다들 ‘그렇다고 치고’ 넘어 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날 확률이 몇 십만 분의 일이었다지 않나! 자연스레 생각은 이어진다. 펀드투자나 교수임용, 그것도 아주 특출한 교수임용같이 중요한 문제가 이렇진대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는 일상적 업무는 어떨지 궁금해진다. 몇 백억씩 소요되는 건축물은 지었으니 지었나 보다 수준이었지 않았나! 아서라, 됐다! 학문윤리나 공금 횡령, 학사 문제 등 여타분야로 더 이상 상상력을 넓히지 말자.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정집이 있고 업무분장이 있다는 사실들은 다 잘 안다. 결과는 요령껏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 이른바 꼼수의 등장이고 대학행정의 관료화이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의 중요성분이 꼼수와 관료화이다. 교수회와 대학 평의회 업무 일 년 반에 나는 이 형식주의와 꼼수를 수도 없이 목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꼼수를 들라면 나는 주저 없이 꼼수의 백미로서 재단의 개방이사 선임과정을 들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조항을 십이분 오남용(誤濫用)하여 이리저리 교수회의 태클을 피해가는 기술은 가히 수준급이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 6억 9 천만 원에 이르는 (재단이 꼭 내야 하는, 그래서 내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추가 법정 전임금이 2012년도 대학 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아주대학 재단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 말에 한 편으로 수궁 가는 면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단의 이러한 몰(沒) 대학적 행태가 대학 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학 행정이 제 스스로 굳이 시키지 않아도 재단의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지침을 알아서 지키도록 내장 회로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재단과 행정 협조하기 힘들다.”는 속내를 몇 번인가 회의석상에서 드러내는 보직 교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면 사표 쓰고 교수직분으로 돌아가세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재단에 직원 분들이 함부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 못하는 심사는 십분 이해한다. 그래서 재단이 총장 비서실을 제 비서실 다루듯 하여도 심하게 다그치지 않았다. 재무관계나 기타 소소한 일로 난처한 입장을 은연중 하소연하는 직원들도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보직 교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아니 그래서서 아니 된다. 총장은 더 더욱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문해도 재단의 결정사항을 구두 통고가 아닌 문서로 받아 놓으라는 요구를 왜 수용 못하는가? 교수직의 정년 보장에는 학문적 성취와 추구에 대한 보상적 의미와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한 배운 자로서 할 소리는 해도 된다는 아니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또한 무시 못 할 도덕적 명제라는 것을 보직 교수들은 재임 기간 중에 마음속에 각인했으면 싶다.

재단이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건 내 대학이니 너희들은 간섭 말고 월급이나 받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는 대학 발전 어렵다. 대학의 발전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단의 배타적 행태가 포용적 제도화로 바뀌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알기로는, 불굴의 기업가적 정신으로 남들에 앞서 세계 경영을 외친 김우중 씨의 한 시절 생각도 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없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돈은 중요한 대학 발전의 한 요소임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돈이 다는 아니다. 천문학적 돈을 쥐고 대학 발전시키려면 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돈이 좀 없더라도 사정을 소상히 밝히며 이래서 저러니 설명하고 대화하며 양해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가며 성취를 이루었을 때가 진정한 성취가 아니겠는가? 적의 침입에 대하여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로마는 사방으로 길을 뚫었다. 명나라 장수 정화가 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때 쓰던 범선의 크기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콜롬부스의 산타 마리아(Santa Maria) 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함이었지만 명(明) 황제의 권력독점 욕구는 제 스스로 기회를 거두어들이고 제 백성을 반(半) 노예 상태로 몰아넣은 서세동점(西勢東占) 제국주의의 시발점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가. 1910년 국치(國恥) 후의 일화도 생각한다. 평민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군자금 마련을 위해 양반집을 찾았단다. 손이 떠난 후 양반이 제 스스로에게 던진 말에 조선의 운명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상놈 주제에…” 같이 가야 산다. 서로가 끌어안아야 산다. 그래야 험한 경쟁 속에서 존재하고 더 나아가 융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재단의 행태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면 재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점점 높아짐을 경고하는 것이다. 교수사회 예를 들겠다. 재단이 앞장서서 교수사회 분열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재단의 행태에 비판을 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들의 견해가 기존의 균열구조와 겹치면서 증폭되는 현상을 손쉽게 목도하였다. 이른바 ‘네 편, 내 편’ 가르치는 진영논리는 교수사회 자체 내의 모순에서 촉발된 면도 없지 않지만 재단의 행태와 꼭 무관한 것만도 아니라는 말이다. 교수회 일을 맡으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기억은

단연코 재단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고 대학본부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아니었다.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여 팔자소관으로 돌릴 수 있었다. 가장 곤혹스러웠던 경험은 교수사회의 근거 약한 분열과 편 가르기가 공사 구분 못하고 뒤섞이며 이른바 플라톤이 말하였던 ‘동굴의 우상’을 만들어낼 때였다.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하여도 ‘낙인’을 찍어 사실관계를 제 스스로 만든 해석의 틀에 가둔다면 정말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행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풀어나가야만 한다. 밥상머리건 링 위에서건 맞붙어 실체를 드러내고 소통할 일이지 각각 상대방에 대한 ‘낙인효과’ 뒤에 숨을 일은 아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다.

떠나는 발길이 무겁지만 그래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그간 교수회, 평의회 일 하면서 만난 맑은 정신들 때문이다. 시인 정지용이 앞서 요절한 윤동주의 시집 서문에 그를 칭송하며 남겼다는 “동지선달 꽃 같은, 열음 아래 잉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대학은 이십 년 넘게 내 삶에 밥을 주었고 내 존재에 존엄을 주었다. 월급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고 아주대 교수 명함 내밀며 행세했다는 말이다. 대개의 동료 교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남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수회인 것입니다. 더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글 맺습니다. 그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충장 중간 평가, 그 후

일어나 떠나라

기계공학부 박영무

눈이 참 반갑게 내립니다. 오랜 만에 연구실 창가에서 한참동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내리는 눈이 바람에 휘날릴지언정 제멋대로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깨동무를 하고 내려옵니다. 어느 시인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휘날리면서 서로 서로 어깨동무 하며 내려오는 저 수 많은 눈발 중이 하나'라고 읊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제 연구실 창가 바로 앞에는 큰 소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가지마다 흰 눈을 잔뜩 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모든 가지마다 눈을 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잎을 퉁퉁히 품은 가지가 하얀 눈꽃을 통통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맨 위에서 홀로 하늘로 뻗친 솔가지는 눈꽃조차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관 앞으로 제법 운치 있는 눈길에 났습니다. 성호관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곳 까지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수북한 눈을 차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흐트러지는 눈을 재미있어해 보입니다. 문득 어느 큰스님이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라고 설중에 던진 말이 생각났습니다.

벌써 세월의 무게가 나를 누르는구나 하고 흠칫했습니다. 나도 저 학생처럼 수북한 눈을 차기도 하며 폭신한 눈 위에 뒹굴기를 참 좋아했는데.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들을 모으고 '싸늘한 추회(追悔)'에 설레이면서 오히려 연구실 출입문에 큰 스님의 그 구절을 써 붙여야 했습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이렇게 각진 글자로 써 붙인 것은 그 뜻을 조금은 숨기려함이고 그것은 마음은 그러하나 저신이 그렇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까닭입니다.

한 두 주 전 김상배 교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볼 때 마다 내 마음이 기뻐지는 교수님입니다. 이제는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서 멋도 참 있는 분이지만 제가 김 교수님을 가장 멋있게 여길 때는

그분이 활기찬 모습으로 학교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아마 김 교수님은 제가 차중에서 자기 모습을 훑쳐보면서 지나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늘 두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두 발은 성큼성큼, 학교로 걸어오시지요. 오늘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그 기쁨이 온 몸에 드러나 보입니다. 한 번 쬼은, 학교에 들어설 때 마다 무엇이 그렇게 교수님을 신나게 하냐고 물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물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전화로 탁류청론에 실을 글을 부탁하셨습니다. 총장업무 평가에 대한 것으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제게 늘 기쁨을 주는 김 교수님이 부탁하시니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김 교수님과 함께 하였던 벌써 20년이 다 된 마음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 대학 입시에서 우리대학교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지 겨우 몇 년 안 된 조교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대학의 위상을 두고 조교수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했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 대학이 이 지경에 왔는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 좀 해보자고 또래의 젊은 조교수들 서른 여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우리 대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곳으로 왔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처럼 되어버렸지만, 그 때는 학과 사무실에 복사기가 없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학습 자료를 학교 앞 복사실에 가서 사비로 복사해서 주기도 하고, 1교시 강의 전에 학생들 영어능력 향상시킨다고 1시간씩 영어학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 방학에는 학생들 수학이 부족하다고 수학보충강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할 때인데 우리대학이 어떻게 된 건가? 대학과 더불어 우리가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 총장업무평가해보자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조금은 성급하다고 할지 모르나 이대로 가면 우리대학은 절단난다고 여겼습니다. 서른 여명의 젊은 조교수들이 몇

차례 모임을 갖고 내린 결론은 당시 총장님과 대화를 갖자 그리고 그 대화에서 자연스레 나온 결론을 그 자리에서 총장님께 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른 여명의 조교수들이 제1회의실에서 총장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석한 조교수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총장님은 우리대학의 현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 나셔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를 정리, 마무리 하면서 ‘총장님께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셔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조교수들도, 책임을 나누어지는 심정으로, 어느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지 않았던 당시에, 한 구좌에 월 2만원하는 발전기금을 2-3 구좌씩 모으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총장님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조교수들이 조금은 당돌하게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자신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총장의 거취 문제가 공식화 되고, 당시 우리대학의 병원을 완성하는 일이 남아있으니 그 일은 당신께서 마무리 하시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막 새 임기를 시작한 총장님은 임기 4년을 채우지 않고 2년 후 병원 설립을 마무리하시고, 임기 2년을 남기시고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당시 우리대학은 참으로 대학정신이 살아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별도의 보상도 없이 강의 외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지금도 조용히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수강의상이 없어도 사비를 들여서라고 학습 자료들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논문에 대한 보상금 없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논문들 발표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회의 추천으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1년에 한번 시상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우리대학의 신진교수들 여러 명이 수상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교수님들이 스스로 즐겁게 하던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 지도에서도 교육에서도 심지어 연구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하던 ‘선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이 무슨

기업체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니 교수님들이 스스로 즐거이 하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일들이 꼭 무슨 무슨 제목으로 진행되고 그럴듯하게 포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 밖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써보았던 한물 지난 경영기법 같은 것들이 자꾸 대학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학인들에게 수십년 묵은, 지금은 기업에서도 오히려 버리고 있는 한물간 ‘인센티브’ 제도들을 도입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대학당국은 지금도 무슨 무슨 강화사업, 이러 저러한 보상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수님들이 대개 시큰둥합니다. ‘또 쓸데없는 일을...’ 이라고 혀를 끝끝 찡니다. 대학 발전,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자다 일어나 엉뚱한 구멍을 후벼 파는 꼴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셈을 들여다본 분들은, 엉뚱한 돈놀이에 목돈 잃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순진한’ 교수님들의 알뜰한 연봉을 더욱 짜려는 기만지책일 뿐이라고 정곡을 찌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한 ‘자비의’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못가에는 늘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아예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나타나 물을 돌리는데 그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워 지내던 한 병자도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진정 병이 낫기를 바라는가? 그 병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 연못으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저 못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 못을 떠나라. 그 병자는 벌떡 일어나 고침을 받고 그 못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만 고쳐주는 연못이 어떻게 ‘자비의’ 연못이겠습니까? 대학인 스스로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간지에 목매는 대학이 어떻게 대학이 되겠습니까? 그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처럼 그 ‘자비의’ 연못가에서 물에 뛰어든 준비만 하고 있는 대학은 언제나 병자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총장 중간 평가, 그 후

〈총장 업무평가〉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인문학부 김봉철

우리 대학 교수회는 지난 9월에 <총장 업무수행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수한 상황의 의과대학을 제외하면, 전체 교수의 55% 가량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나 조사의 대표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교수사회에서 이 정도의 참여율과 관심을 보여준 것은, 아주대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이 조사를 통해, 교수들은 나름의 시간과 품을 들여 학교의 장래를 고민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고 ‘희망찬 종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12월 대선에 대한 향간의 관심 못지않게, 이번 조사결과의 끝이 어디일지 자못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향이 있을 것인가?

<총장 업무수행 평가>는 그 성격상 총장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수행 평가라기보다, 우리의 공동체인 아주대학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더 가깝다. 이번 조사에서 교수들은 학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연구활동의 한 주체로서, 또 교육의 한 중추로서 우리 대학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밝힌 것이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교수들이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재단과 학교 집행부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교수들의 자긍심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관별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이번 <총장 업무수행 평가>를 총장 개인에 대한 평가로 보지 않고, 현재의 아주대학에 대한 교수들의 자기진단으로 보고자 한다. 재단과 학교 집행부가 이번 <총장 업무수행 평가>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필자는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미 교수회에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정도로 정리할까 한다.

첫째, 재단에 대한 불신과 총장의 학내외 문제 해결의지(혹은 능력)에 대한 불만이 교수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비전과 역량> 부문의 설문에서 최하평가를 받은 4개 항목이 ‘낮은 법정전입금 해결’, ‘학교-재단간 관계정립’, ‘재정확충전략과 비전’, ‘대내외 문제진단과 해결전략’이고 <하위점수 5항목>도 ‘대내외적 문제해결’, ‘학교와 재단간의 관계설정’, ‘재단의 낮은 법정전입금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교육과 입학정책 부문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주된 이유는 재단의 문제와 총장의 리더십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문제들이 아주대 교수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각한 점은 바로 이 문제들이 교수들의 사기 및 의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재단의 전향적인 대책과 총장의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또다시 기대해 본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표출된 이상, 이것을 수습하고 조정하는 것이 리더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대학 교수들의 연구여건 향상방안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단과 리더십 문제가 아닌 항목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연구관련 항목들이다. <비전과 역량> 부문에서 ‘연구성과 제고 비전과 방안’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권 5위를 차지하고, <노력> 부문에서도 ‘학문 우수집단 동기제고’와 ‘연구역량 제고노력’이 각각 최하위권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또 <결과 및 성과> 부문에서도 ‘학교 연구성과 향상’은 최하위권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수들이 연구여건 향상과 연구의욕 제고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역으로 풀이하자면,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여건만 조성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학교 집행부는

이에 대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단과대학별 평균점수 비교>에서 만족도가 낮은 최하위권 4개 대학이 모두 인문사회계열 대학과 대학원이다. 만족도 최하위 대학들을 낮은 순서대로 들면, 경영대학, 사회대학, 인문대학, 법대의 순서이다(기초대학 제외). 각 단과대학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非)이공계열 대학들이 만족도의 최하위권을 독점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당 대학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학교의 정책이나 자원배분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 혹여 각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행정의 결과는 아닌지 검토해 볼 일이다.

총장 중간 평가, 그 후

총장 임기 후반에 기대하는 것

전자공학부 나상진

현대 사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는 각종 평가 속에서 살아간다. 나의 경우에도 서른을 넘길 즈음에 받은 첫 수업평가에 개진된 수강생들의 의견을 읽고 느꼈던 강렬한 기억이 지금도 꽤 선명하게 내 뇌리에 남아있다. 되돌아 볼 때, 그것이 교수라는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다른 누군가가 바라보는 시각이자 평가였는데, 그 뒤 2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한편으론 나의 교직에 대한 직업윤리관에 또 한편으론 자연인 사이의 대인관계에 알게 모르게 밀거름이 되어 오고 있다.

우리 학교의 이번 총장업무평가는 총장이란 직책에 따르는 직무 수행의 단순한 평가라는 데서 더 나아가 앞날에 대한 구성원이 갖는 기대의 투영이란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평가문항의 주제, 문안 설정 또는 시행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대승적 측면에서 이 평가제도와 평가결과가 우리 학교의 집단 성장과 성장에 자양분으로 쓰일 귀중한 장치이며 자료라는 점이다. 물론 자양분이 밀알에 흡수되어 결실로 드러나기까지는 밀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성이 작용해야 할 것이다.

현 총장의 임기 후반에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도 하고 또 할 말이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만 한다면, ‘야전군 사령관’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겠다.

두 진영이 벌판에서 전투를 벌이는 광경을 상상해 보자. 한 진영은 병졸들이 전선의 앞에서 분투하는데 장수는 뒷선에 머물러 ‘전선에 지시사항 전달!’을 외치고 있고, 다른 진영은 장수가 맨 앞에서 병졸을 이끌어 가며 ‘나를 따라라!’를 외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어느 단체의 역량은 구성원의 상호 신뢰와 지도력, 장비와 화력, 보급력 등 여러 유무형 요소의 종합적인 결정체일 것이다. 우리 대학에 이를 대입해 볼 때, 어떤 것은 현실의 한계로 인한 제약이 큰 사안일 것이고, 어떤 것은 뜻을 세우면 실현 가능한 사안일 것이다. 공동체 가치의 상호 이해와 존중, 공동 목표의 공유라는 무형의 자산을 착실하게 모으고 다지는 일은 실현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의 ‘하나’라고 기대하고 싶다. 이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에는 자기희생과 성찰, 그리고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희생이 지도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 없는 지도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지시 사항의 전달만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병졸들과 함께, 그리고 술과 고기로 위로했다’는 역사 고사가 과거에만 유효한 것일까? 비록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함께 모은 자산은 우리의 역량으로 그리고 물려주고 싶은 유산으로 충분히 자랑스러울 것이다.

총장 중간 평가, 그 후
총장 서신.**아주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총장 안재환**

안녕하십니까? 총장 안재환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한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종강에 즈음하여 지난 일 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아주가족 여러분,

2012년 한해도 학교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자랑할 만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신을 통해서 올해 추진된 사업들 중 현재 진행 중인 특별히 중요하고 또 관심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학제개편으로 인한 학과제로의 전환입니다.

대학의 생존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올해 초 시행된 학과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전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별 발전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과제를 통해 우리 학교의 학문단위별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학과의 주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것이 다시 대학의 총체적인 발전으로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학과제로의 전환이 학교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과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를 통한 보상체계를 겨울방학부터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간관련 사안입니다.

취입할 때 말씀드린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이번 학기에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다음 학기에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초 약학관 준공에 이어, 지난 9월에 의료원 웰빙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500여명 수용 규모의 국제학사와 2면의 인조잔디구장 착공이 설계 심의와 정부지원금 지연입금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으나,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국제학사는 2013년 3월 착공하여 201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조잔디구장도 시공 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12월부터 겨울 추운 날씨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공사부터 시작해 내년 봄에는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수 차례의 진상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펀드 투자결정에서부터 손실발행 이후의 후속처리 과정 중에는 학교가 다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할 잘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펀드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원칙에 어긋난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번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당시 학교의 펀드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추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펀드사태에 대한 역사적 기록 혹은 백서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향후 학교의 재정업무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육과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성심을 기울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과 외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학교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10월 31일에 총장 담화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는 자금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자금운용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기금회계와 등록금회계를 엄격히 분리시켰고, 주요 자금운용결정에 대한 위임전결규칙도 처장결재에서 총장결재로 개정하는 등 관련 시스템 모두를 점검해서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펀드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현황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엑셀작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시 펀드투자 및 손실의 은폐처리 관련자들에 대하여 학교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하여 작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시효 경과로 인하여 총장의 경고조치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부분 역시 이와 동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미해결인 채 남아있는 펀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선물환계약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해외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선물환계약의 무효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기에 처리에 앞서 법적 소송을 통하여 이 계약의 무효를 다룰 것입니다. 이후 법적 판단이 나오면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해외부동산펀드를 환매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담보설정과 무관한 일반펀드 가입 재산은 시장상황에 맞추어 학교 자금운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게 처분하고자 합니다.

펀드투자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며, 그동안 펀드문제로 아수가족 모두가 받은 상처와 심려에 대해 총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우리학교가 개교한지 어언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0이면 불혹(不惑)이라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난 과거의 갈등과 아픔을 이겨내고,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아수가족 여러분들께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수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된다고 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처럼 우리 학교가 이겨내야 할 대학 주변 환경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대학교의 저력과 아수가족 여러분의 경쟁력을 믿습니다. 아주대학교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내고, 다시 한 번 비상하는 그 날을 위해 저와 보직교수 그리고 교직원 모두는 더욱 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수가족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겨울방학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더불어 2013년 새해엔 계획하신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년을 앞두고 드리는 말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이 영주

요즘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몸담았던 아주대학교병원을 둘러보면서 ‘이제 두 달 후에는 이 병원을 떠나게 되는구나!’하는 생각에, 정들었던 병원의 구석구석을 기억속에 더 담고자 두리번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는 사건들의 연속가운데 이 병원에서 지낸 20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갔음을 통탄하게 됩니다.

저의 40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 20년간은 마취과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수술 시 환자의 마취와 관리를 하였으며, 후반 20년간은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중증 외과계 환자들의 수술 전후 관리와 안전한 회복을 위한 진료를 하였습니다. 1994년 아주대학교병원이 개원하였을 때부터 외과계 중환자실 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중환자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의 의료인으로서의 좌우명은 ‘첫째는 내가 배운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둘째는 모든 환자를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은 너무 빨라서, 40년 전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치료의 정식으로 여겨졌던 지식이 지금에 와서 그 의미가 미미한 것도 있고, 그 동안 개발되고 소개되어 치료에 사용되었던 약물들 중에는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들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이었던 치료가 지금에 와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로써, 이러한 예는 급속적인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급변하는 최신의료의 발전 안에서 제가 아는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 즉, 새로운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종종 몇몇 의료인들이 옛 지식에 안주하고, 그 믿음이 강하여 새로운 지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의 회복은 환자 자신의 면역력과 의료인의 적절한 치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돌보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전화로만 지시하지 않고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치료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 한 경우는 없는지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0년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병원의 발전과 더불어 제 자신도 발전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동료 의료인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면을 빌어서 모든 동료 의료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해 JCI(Joint Committion International)라는 국제 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JCI 인증을 책임지고 준비했던 위원장으로서 제가 바라는 아주대학교병원의 모습은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2년간의 인증 준비 과정 동안 어려움도 많았으나, 시스템상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고 결국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된 사항들을 유지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동료 의료인과 이제 막 힘찬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새내기 후배 의료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으로서 의료 원칙에 부합하는 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교과서에서 배운 최신 의료지식과 실제 임상에서 행하여지는 진료가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아직 약물이나 기기가 도입이 되지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이나 외국 선배를 통해 도제식으로 전달되는 지식이나 관습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들의 진료 방식을 답습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신과 정확한 지식, 최신지견을 갖추고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환자 개개인을 치료할 때,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치료과정 하나하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투여 경로가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기 보다는,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한 후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아직은 선후배, 자연, 학연으로 얽힌 이 사회에서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 종종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의에 입각하여 용기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저는 2013년 3월부터 제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중환자실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의 세 번째 의료 인생이 모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중환자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들의 건강 칼럼

흉통과 위험인자의 관리

의과대학 순환기내과학교실 신준환

흉통과 관동맥 질환

사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개는 경미하지만 간혹 심각하게 다가올 때도 있다.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흔히 접하는 증상 중 하나가 가슴 답답함 혹은 흉통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가슴 쓰라린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전날 회식으로 과음을 하여 신물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화끈거리는 걸 느낄 수도 있다. 그 밖에 여러 원인이나 상황으로 가슴 부위에 통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심장, 폐, 위나 식도, 대동맥, 종격동, 간이나 담도에 질환이 있을 때, 근육이나 골격, 피부질환,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때 흉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중 관동맥질환으로 인한 흉통은 드물지도 않으며 중년이후에 잘 발생하여 우리 교수들 혹은 가족들 일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다. 관동맥질환은 동맥내피장애(endothelial dysfunction)와 죽상동맥경화(atherosclerosis)가 근간을 이루는 병태생리이다. 임상양상이 다양하여 심급사나 급성관동맥증후군등의 응급치료를 요하며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정형협심증, 무통성심근허혈, 관동맥연축, 미세혈관협심증등의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불안정한 임상상은 적절한 치료로 안정상태로 이행되기도하고, 안정적인 임상상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하는데 흉통이 현 상태를 반영하는 주요 indicator로 이용된다.

흉통은 협심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슴부위에 생기는 특징적 증상을 일컫는 용어다. 증상 자체가 특징적이어서 병명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관동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협심증은 환자마다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특징적인 증상은 △ 가슴 한가운데의 둔탁한 통증(날카로운 통증 보다는); 불편한 느낌; 가슴을 쥐어 짜는 느낌; 따가운 느낌; 짓누르는 느낌등이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심근의 workload가 많은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는 점이 관동맥질환을 추정할 때 중요하다. 예를 들면 평지를 빨리 걷거나 경사진 곳이나 계단을 오를 때, 걸레질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도중에, 때로는 부부 관계 중에 나타난다. 특히 식후나 새벽에 찬 공기를 쐬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더 잘 나타난다. 통증 지속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이나 3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한다. 안정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투여하면 흉통이 사라지나 급성심근경색증 때는 효과가 없다. 또 등, 목, 턱 등으로 방사통이 있을 수 있으며 동반 증상으로 식은땀, 어지럼증 등이 있다.

진단과 치료

관동맥질환을 진단하는 데에는 임상양상이 중요하며 운동부하심전도, 관동맥 CT 촬영, 핵의학 검사, 관동맥조영술을 이용한다. 응급상태여서 치료를 빨리 결정해야 할 때 혹은 확진을 필요한 경우는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 대퇴동맥을 이용하여 검사하므로 검사 후 환자가 불편하고 침습적인 검사라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요골동맥(radial artery)로도 검사할 수 있어서 입원하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임상양상인 경우 관동맥 CT가 좋은 검사 방법이며 특히 negative predictive value가 높아서 스크리닝 검사로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단, 현재는 보험문제로 일부 환자 혹은 검진에서만 이용하고 있다.

운동부하심전도검사도 간편하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타 진단법에 비하여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관동맥의 협착 또는 폐쇄가 동반되는 급성관동맥증후군 환자에서는 관동맥 스텐트 치료가 증상을 호전시키고 심근손상의 진행을 억제하고 향후 심혈관계 사건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스텐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동맥우회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도 스텐트삽입술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은 약물치료와 비교해서 더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억제하고, 심혈관계 사건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술을 하든 하지않든 모든 환자에게 시행한다. 특히 관동맥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관동맥질환 위험인자는 남자, 나이, 관동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이다. 이 중 남자, 나이, 가족력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요인들이나 나머지는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근원적인 치료는 어려워도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관동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이차적 예방을 위해 또는 향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일차적 예방으로의 위험인자 관리의 매우 중요하다.

위험인자의 관리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대사증후군으로 뭉뚱그려 대별되는 질환들이 관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tanalysis등으로 잘 조절이 되었을 때 관동맥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심혈관계사건

및 사망률의 감소에 대해서는 잘 입증되었다. 물론 조절의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으나 혈압은 140/90 mmHg 미만으로 (당뇨병이나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30/80 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은 100mg/이 미만으로(당뇨병등의 고위험군은 70mg/이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대부분의 치료지침서에서는 권유하고 있다. 약물치료가 근간을 이루고 비교적 간편한 방법이며, 치료 효과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도 많다. 그러므로 약물치료의 적응증이 된다면 반드시 복용하여 위험인자를 철저히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약물과 병행하여 생활습관개선은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치료 방법이다.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의 조절에 대한 생활습관개선의 효과는 표에서 보듯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항고혈압제 보통 용량 1정의 혈압강하 정도는 평균적으로 약 5-10 mmHg이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당하며 또 관동맥위험인자의 치료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인자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다. 그런데 약물을 복용하는 것 보다는 실천이 어려워 지속적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위험인자들은 대부분 증상도 없어서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치료 모두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조직의 수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전에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꼭 챙기는 것이 좋겠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생활습관개선은 항상 시행해야한다. 또 약물 복용이 필요할 정도의 변화가 관찰되면 병행하여 치료하는 것이 향후 관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사건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생활습관개선의 종류	방법	수축기 혈압 감소정도
체중감량	정상체중유지 (BMI < 25 kg/m ²)	5-20 mm Hg/10 kg
식이요법 (DASH eating plan)	야채, 과일, 저지방 식이가 풍부하고 총지방량 및 포화지방이 적은 식이	8-14 mm Hg
염분섭취감량	NaCl 섭취 < 6 g/day.	2-8 mm Hg
운동	빠르게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 (하루 최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4-9 mm Hg
적절한 알콜섭취	남자에서는 맥주 750 cc, 소주 3잔, 위스키 2잔, 와인 1-2잔 이하로 섭취하고 여자나 체중이 적게나가는 남자는 일반 남자의 반 이하로 섭취	2-4 mm Hg

소통과 담론

중국공산당의 권력교체와 중국의 미래

인문학부 김태승

중국의 정치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해당되는 국무원,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줄여서 전인대)의 3각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권력 서열도 그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밖에 전국정치협상회의(줄여서 전국정협)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 협력한 비공산당계 '민주당파'와 직능대표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통일전선 정치기구로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중국의 모든 무장역량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당과 정부에 동일한 형식, 동일한 인물로 구성되어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산당의 권력 서열은 그대로 중국의 모든 공식적 권력기구에 반영되고 있다. 공산당의 권력구조 개편에 전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개최. 중국에서 주요공직의 임기 역시 5년)에서는 중국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확정하였다. 수많은 언론의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위원 명단.

당직 이외의 예상 직위는 내년 3월 개최될 전인대에서 최종 결정(변경 가능)

이름	생년	출생지	출신대/전공	현직	예상 직위	파벌
시진핑 (習近平)	1953	산서	칭화/화학(학사)사상정치교육(박사)	국가부주석(당총서기)	국가주석	태자당
리커창 (李克強)	1955	안휘	베이징/법학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총리	공청단
왕치산 (王岐山)	1948	산둥	시베이/역사	국무원 부총리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태자당
장더장 (張德江)	1946	요녕	김일성종합대/경제학	충칭시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상하이방
장가오리 (張高麗)	1946	복건	샤먼/경제학	톈진시 서기	국무원 상무부총리	상하이방
위정성 (俞正聲)	1945	절강	하얼빈 군사공정학원	상하이시 서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태자당
류윈산 (劉雲山)	1947	산서	공산당 중앙당교	당중앙선전부장	국가부주석	공청단

그런데 이러한 권력교체의 과정에서 특히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파벌정치의 양상이었다. 중국에서는 등소평 사망 이후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다시 출현하지 않았다. 절대권력의 폐해를 '처참'하게 경험했던 등소평은 예측가능한 권력이양체제를 건설하고자 했고, 권력의 분산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지도체제가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권력분점/권력이양이 아니라 당내 권력투쟁의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파벌정치의 고착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등소평 이후 권력을 승계했던 강택민 계열의 상해방(강택민의 상해 당서기 시에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이 주축. 방은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을 비롯하여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들), 공청단(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간부출신) 등이 그러한 정치파벌을 대표한다. 이 외에 석유산업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권력에 진입한 집단을 '석유방'으로 부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위 3개 파벌이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분점하는 현상이 지속되게 되었다.

18차 당 대회에서도 이러한 파벌 간의 합종연횡이 극심하여 언론의 오보를 양산하기도 하였는데, 7인의 상무위원 중 당 총서기를 배출한 태자당은 3인, 상해방 2인, 호금도 현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청단은 2인을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자당은 상해방과 연대하여 집권세력이었던 공청단 계열을 견제한 결과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대신 공청단은 호금도의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통치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강택민의 삼개대표론>과 나란히 하는 지위에 올려놓는 당규개정에 성공함으로써 명예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차기 후계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훈련을 시키는 중국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5년 후의 차기 당 대회에서는 보다 극심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7인의 상무위원 중 40년대 출생자 5인은 차기

당대회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파벌정치가 진행됨에 따라 권력투쟁은 줄 세우기, 검은 정치자금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시라이 전총청시 당서기의 처벌을 둘러싸고 표면화된 파벌정치의 실상은 원자바오 현 국무원 총리의 부패 폭로 등 상호비방을 가열시켰으며 그 결과는 공산당 지도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었다. 공개되고 제도화된 권력경쟁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파벌정치는 당연히 파벌관리를 위한 엄청난 정치 비자금수요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공산당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민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난 중국 공산당 권력이 부패에서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공산당의 위기로 연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상 어떤 독재정권도 결국은 부패로 인해서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고 있던 금년 11월 <중국청년보>라는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중국발전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론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들이 중국사회의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될 요소로 지적한 것은 “빈부격차(75.4%)”, “제약 받지 않는 권력(59.4%)”, “고소득 층의 불로소득 증가(52.8%)” 등이었고, 향후 10년간 대중이 원하는 개혁의 항목 가운데서는 수입분배개혁(66.6%), 부패개혁(57.8%), 정치체제개혁(44.6%:행정관리체제, 사법체제개혁 등을 포함하면 그 비율을 훨씬 높아진다) 등이 각각 1, 2, 5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부의 공평한 분배와 반부패 그리고 정치체제의 개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8차 당대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성숙해진 시장사회를 당조직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욕심은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거치면서 지난 10년 내에 2000만이 넘는 당원수의 급증을 이루는

성과를 내었지만,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부정부패를 막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자료에 의하면 18만여 건에 달하는 각종 시위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중국 내 한 대학 연구소의 조사결과 중국의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함. 미국은 0.43이고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브라질도 0.53)는 0.61로 근대 중국에서 가장 큰 농민의 저항운동이었던 태평천국이 등장했던 시기의 수치 0.58(추정치)보다도 훨씬 악화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부의 합리적 분배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도부가 권력투쟁과 부정축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우주선을 발사하고,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하고,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등 파시즘의 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외부의 가상적 설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전형적 독재국가의 형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외부의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육성과 과감한 권력이양을 통한 사회적 정화기능의 제도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환 등 보다 진전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공산당은 18차 당대회에서 허망한 슬로건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성숙화에 수반된 경제정의문제, 권력배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공산당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와 오늘의 번영하는 중국을 건설했듯이 이번에도 중국공산당이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lisani@ajou.ac.kr

소식

I. 펀드 투자 조사 및 총장 업무 수행 평가 결과 보고회 개최

교수회는 2012년 11월 8일(목) 오후 4시30분에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펀드투자 조사 및 총장 업무수행 평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60여 명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보다 한 시간을 넘긴 두 시간 반에 걸쳐 진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학 본부를 대표하여 교무, 기획, 총무, 학생, 대외협력 다섯 분야 처장이 참석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교수회 의장의 경과보고에 이어서 이순일 교수가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수행한 펀드투자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그리고 김태승 교수가 총장 업무수행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서 본부 답변 시간에 기획처장은 펀드투자 조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위법한 행위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펀드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종합적인 입장 발표를 금학기말 이전에 본부가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본부도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함을 내비쳤다.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교수회 의장은 맺음말 인사에서 선(先) 사실관계 확인, 후(後)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이 드러난 상황에서 보고서를 둘러싼 각종 견해가 토론을 통하여 대학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로 수렴되기를 희망하였다.



II. 제 46차 대의원회 및 교수회 송년회

지난 12월 17일 호텔 캐슬 증식당에서 제46차 대의원회 및 교수회 송년회가 열렸다. 대의원회와 교수회 위원회로 활동한 교수들 총 11명이 함께 참석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논의사항으로는 신임 의장 및 감사 선출 건, 펀드투자 조사 후속조치 건 등이 있었다. 신임의장 선출은 방학중임을 고려하여 교수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모든 대의원들이 소속 단과대학의 선거관리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선거는 내년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하였다.

펀드투자 조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 (1)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발표문이 펀드투자 조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총장 담화문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아주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총장 송년사에 끼워 문혀 발표한 점.
- (2) 학교와 교수회가 어렵사리 합의하여 공동조사한 보고서에 대해서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조사 및 발표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보고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교는 발뺌하는 모습을 보인 점.
- (3) 조사보고서에서 새로 밝혀낸 사실들에 대해서 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대신 ‘추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인을 피하고 있는 점.
- (4) ‘관련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조처가 지극히 피상적이고 불분명합니다. 당시 관련자의 직위와 직위상 책임질 사항과 부적절한 행위를 (제단 포함하여)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책임자에 관한 조처 중 2008년 확정손실 은폐건은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관계자의 문책을 명시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

(5) 과거 펀드투자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데이터를 엑셀로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펀드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현황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엑셀작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미래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엑셀화할 여지를 남긴 점.

또한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 경찰청 수사과가 본교를 횡령,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 대상은 실무자 선이 아닌 고위 책임자 선을 대상으로 수사중임이 감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단일한 대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교수회와 대학 내부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아주대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대의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보고회에서 대학 본부가 약속한 본 건에 대한 백서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백서에는 위 (2)-(5)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펀드투자 건을 금년 내에 교내에서 모두 매듭짓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썼으나 총장의 부적절한 송년 담화문 발표로 아주대의 펀드투자 문제는 또다시 새해로 넘어가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주대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 새 해에는 아주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새롭게 화합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새로운 리더십 구성을 기대하며 제 46차 대의원회 및 교수회 송년회를 마쳤다.